

# ① 군민 교육·현장 중시·소통 행정 '3박자'

## 강진군, 공모사업 따내기 3대 비법

- ② 지역 미래 영향까지 치밀하게 분석
- ③ 담당자들의 의견 살려 능동적인 대응

강진군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자금은 모두 235억원으로, 지난 2011년 112억원에 비해 급증했다. 7%대의 재정자립도로, 자체적인 신규사업 투자가 불가능에 가깝던 강진군은 아이디어와 전략을 통해 '안전하고 이차 없는' 국비와 도비를 대거 투자받은 것이다.

단기적인 외형 성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내적 성장에 주안점을 뒀다는 점에서 강진의 새로운 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에서 이들 주민들과 만나 군정의 문 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공모사업' 아이디어와 전략의 밑그림은 이러한 교육과 현장에서 그려진다.

군이 운영하는 생명산업·관광·음식·수산 등 16개 정책위원회에는 300여명의 전문가와 지역 리더들이 함께해 소통하며 공모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자문을 하고 있다.

◇과감하고 치밀한 선제적 대응 = 매일 오전 강진군 실·과 직원들은 중앙정부 부처 및 기관의 홈페이지를 열어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예상 밖의 공모사업이 진행되는지, 공모기간에 서류 준비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매주 수·목요일 오전 그룹별 부서장 토론회가 부군수 주재로 열리고, 두 달에 한 번씩은 전체 직원이 참석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있다.

◇교육·협장·소통 = 전남의 작은 군이 전국 지자체들과 상대해 중앙정부 부처·기관의 공모사업을 따내기란 녹록하지 않았다. 전국의 다른 농촌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안 돼 경쟁력을 강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민의 자긍심도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였다.

강진은 이러한 여건에서 지난해 이장, 여성, 청년 등 각계 계층이 참가하는 '군민대화'를 개설했다. 서울대와 함께 하는 이 대학에 참가하면서 450여명의 지역민들은 지역주민에 새롭게 다가서고, 이를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직업과 지역 내 역할에 맞춰 강의를 구성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참가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해의 및 국내 연구에도 지역농민 3000여명이 참가했고, 작목별 연구회도 속속 조직돼 66개 연구회에 22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직원들은 현장



강진군 칠량농공단지 내 점심푸드에 직원으로 취업한 지역주민들이 지난 20일 호박고구마로 반건조 식품을 만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2013년 강진군 주요공모사업 선정현황 (단위: 백만원)

| 선정기관      | 사업명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부담 | 계     | 군 부담비율(%) |
|-----------|------------------------------|-------|-----|-----|-----|-------|-----------|
| 고용노동부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창자정인 양성교육) | 100   |     | 7.5 |     | 107.5 | 6.97      |
| 지역발전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 1,690 |     | 188 |     | 1,878 | 10.01     |
|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 DB 구축사업 (고려청자 DB구축사업)     | 2,350 |     |     |     | 2,350 | 0         |
| 한국정보통신진흥원 | 창조지역사업                       | 1,200 |     | 300 |     | 1,500 | 20        |
| 지역발전위원회   | 창조지역사업                       | 250   |     | 50  | 200 | 500   | 10        |
| 농림축산식품부   | 향토산업육성사업 (강진한우 명품화)          | 1,500 | 180 | 720 | 600 | 3,000 | 24        |

가끔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놀라기도 한다"고 말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 강진군이 공모사업 선정에 행정력을 집

중시하면서 군청 내 사결정 과정에서 각 실·과 담당직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군수·부군수의 지시나 공약 등에 좌지우지되기 보다는 실·과 담당직원이 지역 내 현장, 중앙정부 부처 및 기관 직원 등으로부터 체득한 정보를 가공하고 이를 통해 공모사업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공모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변영명(여·43·행정 6급)씨는 "공모사업의 종류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화되고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

# 안철수 신당 가시화 야권 새판짜기 예고

## 28일 창당 공식화

특히 세력화를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오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지난 22일 취재진에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안철수 의원은 정치세력화와 관련해 11월28일에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창당'에 준하는 세력화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은 24일 "현재 정치상황에 대한 진단, 새로운 정당과 정치세력화의 필요성, 앞으로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의 일부 측근들은 안 의원이 창당 시점과 방법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을 뿐, 사실상 창당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창당 공식화'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정치세력화 선언을 기점으로 내년 6·4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창당 수순을 밟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정 등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안에는 창당이 완료 될 것이라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안철수 신당'의 출현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분할해온 양당체제 중심의 현 정치구도에 다당제로의 재편을 예고하는 등 정치권의 지각변동에 예

사된다.

창당 신당의 현실화는 야권의 새판 짜기 움직임에 종대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야권 내 독주체제가 흔들리게 되면서 신당과의 양보 없는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양측 간 '일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여야 간 '대다자'간 대결구도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한 경우 야권 분열 책임론을 운통 뒤집어줄 수 있는 점은 안 의원의로서는 부담이다. 때문에 박빙의 차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분적 선거연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단 내년 6월 지방선거와 7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안철수 신당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당이 1차 관문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둔다면 차기 총·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소문만 무성했던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과 안 의원 간 연대설이 힘을 받게 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무당파에 대한 표창력이 적지 않은 만큼, 여권도 장기적으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강진 사람·자원 만으로도 잘 살 수 있다 자신"

### 강진원 강진군수 인터뷰

"강진은 다양한 인적·물적·자연 자원이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지역 발전을 갈구하는 지역민과 직원의 역량만 강화된다면 5년 뒤, 10년 뒤에는 강진시대를 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지난해 4·11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년7개월째 강진군을 이끌고 있는 강진원(54·사진) 군수는 지난 20일 '강진 사람'과 '강진 자원'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지역민들에게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임해보니 돈이 없더군요. 고심한

끝에 공모사업을 집중공략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갈수록 늘고 아트홀 등 전일 군수가 벌여놓은 사업에 매년 거액을 투입해야하는 입장에서 강 군수의 선택지는 좁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재정자립도는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7%

대다. "교육만큼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지역민도 지역에서 조금 벗어나 선진지에서 배우고 다시 지역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고요. 저도 연수를 떠나는 현장에 직접 나가 열심히 배우시라고 부탁도 드립니다."

강 군수는 도시를 따라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우리 것으로도 잘 살 수 있다"는 모범을 보이고 싶다고 했다. 그와 강진군의 '도전'이 어떠한 성과를 낼 지 기대되는 이유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www.kead.or.kr
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0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입니다.

### ■ 장애인취업 지원

장애인의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및 사업주 지원 내용
- \*(참여자) 취업성공수당 : 일정 요건의 일차리에 취업시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 지급
- \*(사업주) 고용촉진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860만원 지급

### ■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유형과 업무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도와드립니다.

- 대상 : 장애인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내용 : 장애와 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인의 업무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하거나 제작, 개조하여 무상으로 지원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이내

### ■ 근로지원인서비스 지원

직장생활의 부수적인 업무에 근로지원인을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도와드립니다.

- 내용 : 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근로자 직무평가를 거쳐 결정) 근로지원인을 장애인근로자 사업장에 파견

### ■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용자·무상 지원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드립니다.

|    | 용자 지원  | 무상 지원  |
|----|--|--|
| 내용 | 기업당 15억원 이내 (연리 3%,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기업당 3억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중증장애인 1인당 1,500만원)  |
| 용도 |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생산라인조정,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 |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 및 설비,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 장애인 통근용 승합차 구입 |

###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모회사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 또는 운영하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 모회사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
|------------------------|--|
| 장애인고용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1개사 : 출자 및 주식의 50% 초과 소유<br>2개사 이상 공동출자 가능   |
|                        | · 장애인근로자 10명 이상<br>· 장애인·근로자수의 30% 이상<br>· 중증 : 상시근로자·차등 고용<br>· 편의시설을 갖춘 것<br>· 최저임금에 이상의 임금 지급 |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다수고용기업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 표준사업장 설립 희망 사업자                    | 인용요건   | 표준사업장 인종                                |
|------------------------------------|--|---|
| · 무상지원신청                           | · 장애인근로자 10명 이상<br>·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30% 이상, 중증장애인(규정보조 차등) 이상 고용<br>· 최저임금 이상 지급<br>· 편의시설 설치 | · 법인소득세 50% 감면 (5년간)<br>· 생산물 우선구매제도 적용 |
| · 지원에 따른 고용의무 부과<br>· 시설 투자 및 고용이행 |  |   |

**※ 찾아오시는 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 관할지역 :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장흥군,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KT 목포사옥 7층)  
\*목포역 도보 5분 거리
- 지사 대표전화 : 061)240-0700
- 콜센터 : 1588-1519